

미국 동부지역 의학도서관 견학을 다녀와서

박정미*

시작하면서

이번 “미국 동부지역 의학도서관 견학”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이하 한의도협)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견학의 가장 큰 목적은 1968년 한의도협이 창립되고 3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학도서관과 의학사서의 현주소를 재조명”하고자 함이다. 그에 따른 주요 세부 목적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급변하는 정보환경 및 정보매체, 그리고 정보유통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 둘째, 보유 정보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극대화, 셋째, 의학사서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함이다.

견학기간은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8박9일 이었다.

참가인원은 총19명으로 그 구성원은 의대도서관장(3명), 의대도서관 사서(11명), 병원도서관 사서(3명), Medric DB 제작 담당(1명), 기타 가족(1명-전임사서)이다.

견학 대상 도서관은 총5개로, 1) 보스톤의대도서관, 2) 하버드의대도서관, 3) 예일의대도서관, 4) 미국립의학도서관, 5) 존홉킨스의대도서관 순이다.

뉴욕의 자유로운 문화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8시, 브로드웨이 마제스틱 극장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였다. 국내에서도 공연된 이 뮤지컬은 화려함의 극치라고 불리는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를 그대로 옮겨 놓은 무대였다. 과연, 명성에 걸맞는 무대와 조명 장치,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은 뮤지컬이 끝난 후에도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되었다.

다음 날인 9월 29일은 일요일이었다. 주일이라 그런지 바쁜 뉴욕커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우리는 전용 버스를 타고 9.11 테러시 무참히 폭격을 당한 쌍둥이 빌딩 자리와 워싱턴 광장, 소호거리, 컬럼비아대학 등을 차안에서만 바



예일의대도서관 앞에서의 기념촬영, 둘째 줄 오른쪽에서 4번째가 필자

* 강북삼성병원 의학정보실 사서, e-mail : kbmedlib@dreamwiz.com

라보았다. 그후, Circle Line호를 타고 바라 본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는 아름다운 뉴욕 전경을 내려다 보았다.

9월 30일 월요일 아침, 월가인 맨하탄 거리는 출근길로 분주했다. 우리는 뉴욕의 자유로운 문화를 잠시나마 느끼면서 견학지인 보스턴으로 떠났다.

귀족적인 분위기의 보스턴과 뉴헤븐의 도서관 견학

보 스톤과 뉴헤이븐의 첫인상은 귀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왔다. 바쁘고 높은 건물만 있는 뉴욕과 비교하니, 기품있는 아담한 가옥 구조가 조그만 성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9월 30일 부터 10월 2일까지 보스턴과 뉴헤븐에 머무르며 보스턴의대도서관, 하버드의대도서관, 예일의대도서관을 차례로 견학하였다.

보스턴의대도서관

(<http://med-libwww.bu.edu/library>)

9 월 30일 월요일 오후 3시, “Alumni Medical library”라고 불리우는 보스턴 의대도서관을 방문했다. 이 도서관의 자료구입은 우리처럼 1) 상호대차와 저널 이용 통계, 2) 기관, 스태프, 학생들의 추천, 3) 해당 주제분야의 자료가 적을시 우선적으로 구입한다고 한다. 도서관 시설 및 장서수, 그리고, 전자저널 구독수는 우리나라 의대도서관과 비교시 별로 특별한 점은 없었다. 이도서관의 장점은 이용자 교육이었다. 30명 수용의 컴퓨터 교육실에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그곳에선 담당 스태프 사서의 열정과 자부심을 마음에 담아 가지고 왔다.

현대적인 건축미의 하버드의대도서관

(<http://www.countway.med.harvard.edu/>)

10 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 하버드의대도서관인 “Countway Medical Library”를 갔다. 이 도서관의 명칭은 현재 유닐레버 회사의 전신인 “Brothers의 CEO”였던 Francis A. Countway를 기념하고자 붙인 것이다. 이 도서관은 1960년 2개 도서관의 제휴로 “세계 최대의 의학도서관”을 지향하며, 1965년에 설립되었다. 제휴한 2개의 도서관은 Boston Medical Library와 Harvard Medical School Library이다. 건물은 총8층이며, 2000년 9월 28일 리노베이션하여 지상6층 지하2층으로 재개관하였다. 도서관 건축 설계는 미국건축가협회가 그 우수성을 공인할 만큼 조형미가 뛰어났다. 채광을 고려한 유리 천정 설계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도서관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편안한 열람석은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바드의 유명한 의사들을 기념하는 “네임룸”에는 의사들의 초상화와 편안한 열람테이블, 그리고, 검색용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층별 안내판”이 여기 저기에 비치되어 있다. 또한, 도서 보존 및 유지 관리가 철저하였다. 각 서가에는 자동 조명 센서기 및 향온습습기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 도서관의 장점은 기증문화의 활성화와 사서의 전문성 제도이다. 먼저, 기증문화의 활성화로 인해 신간 단행본 구입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료 각과 의사들이 신간을 구입하여 리뷰한 후 곧바로 도서관에 기증을 한다고 한다. 특히,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도서관 출입구 유리문에는 기증자들의 이름과 기증액을

적어 놓았다.

다음은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근무제도가 감명 깊었다. 우리 견학팀을 안내하는 참고사서의 진지함보다 더욱 놀란 건 지하2층 고서실을 방문했을 때 였다. 그곳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얀 백발 커트머리에 안경을 낀 77세의 사서가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나이에 현직 사서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나이에 모든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있을 연세인데 미국에서는 가능했다. 그때, 연세의대 박윤기 관장께서 곁에 있는 참고사서에게 혹시 “저분은 자원봉사자인가요?”라고 물었다. 곧 바로 조용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현직 사서로, 우리 하버드도서관의 보물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보물’이라는 그 참고사서의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만큼 사서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유명한 하버드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버드도서관을 나오면서 역사와 사람, 그리고, 도서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무척이나 부러웠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예일의대도서관

(<http://info.med.yale.edu/library/>)

10 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Harvey Cushing/John Hay Whitney Medical Library”인 예일의대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이 도서관은 채광을 고려한 유리 천정과 1층과 2층을 연결시키는 계단 구조로 시야가 넓게 보였다. 이 도서관에서 가장 관심 깊었던 것은 현대와 과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Cushig/Whitney Reading Room”이었다. 이 열람실은 20세기 신경외과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쿠싱

과 휘트니”를 기념하는 열람실이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풍스런 서가와 벽난로가 있으며, 열람 테이블은 마치 호텔에서 식사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선명한 파란색깔의 개인 열람석, 맥킨토시와 IBM 검색용 컴퓨터가 준비한 열람 환경은 정말이지 부러웠다. 또한, 그곳 사서들의 프리젠테이션은 너무 진지해서 빠짐없이 열심히 받아 적었다.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개의 도서관을 견학한 후,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퀸시마켓, MIT가 보이는 찰스강 풍경을 잠시 바라 보면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생각하였다.

의학사서의 메카 미국립의학도서관

(<http://nlm.nih.gov/>)

보 티모어에 있는 미국립보건원 산하의 미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을 방문하였다. 과연, 세계 최대 규모의 의학도서관이었다. NLM의 설립 목적은 공공 보건의 이익을 위한 생의학 지식의 보급이다. 그 효시는 1865년에 미육군 의무관 자료 보관 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약 6백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의학도서관이 되었다. 그 유명한 PubMed는 네트워크 연결로 전 세계 4,500개 의학도서관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 또한, NLM은 최적의 장서관리를 위해 항온항습기 설치 및 화재예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 지하서고에는 자동 화재 경보시스템과 화재 발생시 완벽한 비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각 서가 옆면에는 화재발생시 경보음이 울리면 책에 “소화방지용 비닐 커버”를 덮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음은 NLM에 근무하는 한국 사서들의 모습이다. 총직원 98명 중에 5명이 근무

하며, 한국의 외화를 벌여 주는 숨은 애국자들로 도서관구입시 국내 대행사에서 구입을 하고 있었다. 한국인 사서가 본 미국립의학도서관의 자랑이 무엇인지 물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큰 의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부심, 둘째, 구독 관련 요청시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 셋째, 주제 전문가로 구성된 Indexing Quality의 우수성, 넷째, 접근의 무제한성으로 전세계 생의학 관련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Medline을 제공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N LM에서는 의학사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목적은 “전문 의학사서의 양성”으로 체계화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자격요건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 의학도서관 사서들에게 개방하며,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나 정보 관련학과 졸업후 3년 근무자들로 제한하고 있다. NLM의 이용자 서비스를 살펴 보았다. 첫째, 지하서고 복사기의 이동방법이다. 서가공간이 워낙 넓어 책을 가지고 복사기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천정에 레일을 설치하여 복사기를 해당 서가사이로 이동시킨다. 둘째, Medlars 상호대차 제공을 위한 스캐너 비치이다. 의학문헌 검색시스템인 Medlars(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서가 뒤에 일렬로 있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셋째, 신간저널은 2권씩 구입한다. 한권은 제본하여 서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한권은 이용자용으로 비치한다. 넷째,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제본시 이용이 많은 저널은 얇게 제본하고, 열람실에는 품위있는 옷걸이와 안내책자를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다 음은 NLM이 자랑하는 “의학사(醫學史) 분관”을 방문하였다.

의학사(History of Medicine)는 의학을 역사적인 사건이나 시대별로 분류하는 학문이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학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1914년 이전도서(약 600,000권), 역사적인 시청각자료(약4,000종)이다.

이곳이 자랑하는 인큐내블라룸(Incunabular Room)에 들어가 보았다. 인큐내블라의 어원은 라틴어로 “요람들”이며, 1,450년~1500년까지의 인쇄자료를 지칭한다. 이곳은 화재 발생시 2분 이내에 책이 타지 않도록 “이산화탄소 방출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또한, 책의 훼손을 우려하여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으며, 열람시 필기도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 내 우수병원 존홉킨스의대도서관

(<http://www.welch.jhu.edu/about/libraries.html>)

10 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Welch Medical Library”라 불리는 존홉킨스의대도서관을 견학하였다. 이 도서관의 명칭은 “William Henry Welch(1850~1934)”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다. 그는 미국의 병리학자이자 존홉킨스 의대 초대학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의학실습과 의학교육을 미국에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의 흉상 조각은 2층으로 올라가는 대리석 계단 정면에 있으면서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다. 건물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었다. 이 도서관은 2000년부터 “전자저널 구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현재 실시 중이다. 5년 뒤에는 100% 전자저널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곳 또한 자유로운 열람환경과 이용자를 위한 안내판과 책자 등을 여겨지

기 비치하고 있었다.

견학 후의 느낌

이렇게 존홉킨스의대도서관을 마지막으로 도서관 견학이 끝났다. 개인적으로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언젠가는 모든 의학사서의 메카인 NLM에 가리라던 희망이 15년이 지나니 이루어졌다. 이번 견학은 나에게 소중한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 의학도서관의 젊은 사서들도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번 짬은 NLM에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견학 도서관의 공통된 점은 이용자 교육의 활성화와 미술관이나 호텔에 온 듯한 편안함과 조형미를 갖춘 시설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참고 및 대출데스크에서 불펜을 사용하는 데, 여기는 반듯하게 깎은 연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형 타자기를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검색 시스템이나 전자저널 구독 현황은 국내와 별반 차이는 없었다. 이번 견학을 하면서 우리 견학팀은 영어 실력의 부족함을 반성하였다. 다음에는 단답형이 아닌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나눌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리라 다짐하였다.

워싱턴에서 2개의 도서관을 견학한 후, 전용 버스로 다양한 조형미를 자랑하는 링컨기념관, 문서보관국, 미국회도서관을 둘러 보았다.

10월 4일, 드디어 5개의 도서관 견학을 모두 끝냈다. 우리 일행은 나이아가라폭포를 보기 위하여 워싱턴을 떠나 버팔로 공항으로 갔다.

10월 4일 금요일 오후엔 우리의 마지막 여행지인 나이아가라폭포를 관광하였다. 캐나다에서 바라본 나이아가라폭포의 모습은 사람들 모습 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멀리, 스카이라

운지에서 내려다 본 폭포와 “안개속의 숙녀호”를 타고 가까이서 본 폭포는 묵혀 두었던 감정 등을 가슴 시원하게 모두 휩쓸고 가버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내리는 야경 속의 폭포의 모습은 실로 장엄함을 지닌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나오면서

이번 “미국 동부지역 의학도서관 견학”을 통하여 몇가지 보고 느낀 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견학 팀원 각자의 느낌과 도서관 환경은 다르지만 더 나은 의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첫째, 사서와 이용자, 그리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한다. 사서는 과거와 현대의 역사 자료를 계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자임을 인식하고, 이용자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후원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발전으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이용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 창출과 우리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둘째, 향후 도서관의 역할은 “전통적인 도서관과 디지털 도서관 기능의 조화”에 있다. 셋째, 미래의 사서 역할은 “이용자 서비스 극대화 및 이용자 교육의 활성화”에 있다. 넷째, 도서관 건축 및 설계는 조형미를 갖춘 이용자 위주의 설계를 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도서관견학이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견학의 마무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적절한 선택과 활용의 문제”를 잘 풀어 나가는 것이다.